


2011-1 <대학과 교양>



한국의 한자 차자표기법

 김유범



차 례

- 한자 차자표기법이란?
- 선인들의 문자 생활과 한자 차자표기법
- 문자 발달사와 한자 차자표기법
- 한자 차자표기법의 원리
- 고유명사 표기
- 구결
- 이두
- 향찰

한자 차자표기법이란?

- 한자의 도입

고구려: 嬰陽王 11년(600) 『新集(신집)』 (5권) cf. 『留記(유기)』 (100권)

백제: 近肖古王 30년(375) 박사 高興이 『書記』 편찬

신라: 智證王 4년(503) 임금의 칭호를 ‘王’ 으로 변경

眞興王 6년(545) 居柒夫 등이 『國史』 편찬

- 한자를 이용한 차자표기법은 훈민정음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사용된 전통적 표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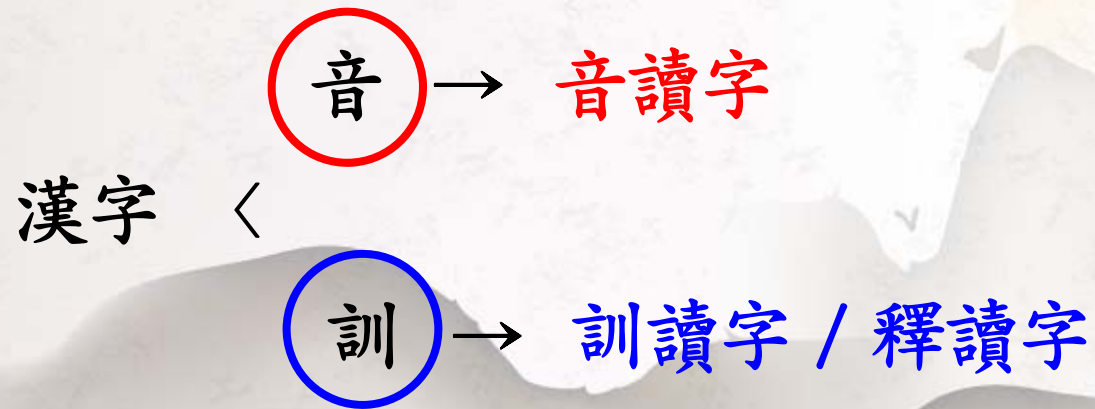
- 한자의 구성 요소

形, 音, 義

한자 차자표기법이란?

- 한자(漢字) 차자표기(借字表記)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방법



한자 차자표기법이란?

- 우리말의 어휘부와 문법부 모두를 한자로 표기



선인들의 문자 생활과 한자 차자표기법

- 한자의 사용

- 한자 차자표기의 사용

- 금석문을 비롯해 서적 및 문서에 나타나는 고유 명사 표기, 이두 및 구결
- 『三國史記』 (1145), 『三國遺事』 (1285), 『均如傳』 (1075)
등의 고유 명사 표기 및 향가

- 차자표기의 불편함은 훈민정음 창제의 한 배경



문자 발달사와 한자 차자표기법

【문자 발달과 문자 유형】

おんな

여자

그림문자 ⇨ 표의문자 ▶ 음절문자 ⇨ 음소문자

단어문자(logogram)

표음문자(phonogram)

- 한자 차자표기법은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한자의 표의적 기능은 물론이고 표음적 기능까지도 우리말을 적는 데 이용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한자 사용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문자 사용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한자 차자표기법의 원리

● 원리

原宗興法(距訥祇世一百餘年) 厭𪔑滅身

新羅本記. 法興大王即位十四年. 小臣異次頓爲法滅身. 卽蕭梁普通八年丁未. 西竺達摩來金陵之歲也. 是年朗智法師. 亦始住靈鷲山開法. 則大教興衰. 必遠近相感一時. 於此可信. 元和中. 南澗寺沙門一念. 撰𪔑香墳禮佛結社文. 載此事甚詳. 其略曰. 昔在法興大王垂拱紫極之殿. 俯察扶桑之域. 以謂昔漢明感夢. 佛法東流寡人自登位. 願爲蒼生. 欲造修福滅罪之處. 於是朝臣(鄉傳云. 工目, 謁恭等.) 未測深意. 唯遵理國之大義. 不從建寺之神略. 大王嘆曰. 於戲寡人以不德. 丕承大業. 上虧陰陽之造化. 下無黎庶之歡. 萬機之暇. 留心釋風. 誰與爲伴. 粵有內養者. 姓朴字厭𪔑(或作異次. 或云伊處. 方音之別也. 譯云厭也. 𪔑頓道觀獨等皆隨書者之便. 乃助辭也. 今譯上不譯下. 故云厭𪔑, 又厭視等也.) 其父未詳. <삼국유사 권3>

[혹은 ‘異次’ 라 하고 혹은 ‘伊處’ 라고도 하니 방음(方音)이 다르기 때문이며, 그 뜻은 厭(엄, 싫어하다)이다. 𪔑, 頓, 道, 觀, 獨 등은 모두 글 쓰는 사람의 편의에 따른 것으로 곧 조사(助辭)이다. 이제 앞 글자는 뜻으로 풀고 뒤 글자는 뜻으로 풀지 않았기 때문에 ‘厭𪔑’ 이라 하고 또는 ‘厭觀’ 등으로도 쓴 것이다.]

한자 차자표기법의 원리

- 말음첨기(末音添記)/훈주음종(訓主音從)

雲音

道尸

秋察

星利



한자 차자표기의 유형

- 고유명사 표기

- 구결

- 이두

☞ 실용적 창작문

- 향찰

☞ 문예적 창작문

고유명사 표기

- 우리말의 인명(人名), 지명(地名), 관명(官名) 등을 한자의 표음적 기능(音讀字 사용)과 표의적 기능(訓讀字 사용)을 이용해 적은 표기. 대표적인 지명 표기로는 『三國史記』 지리지 권34(신라 지명), 35(고구려 지명), 36(백제 지명), 37(고구려, 백제 지명)의 자료가 있다.
- 蓋蘇文 或云蓋金(고구려), 居柒夫 或云 荒宗(신라),
赫居世王 盖郷言也 或作弗矩内王 言光明理世也(신라),
買忽 一云 水城(고구려), 泗水縣本史勿縣(신라),
密城郡本推火郡(신라), 大阿滄 或云 韓阿滄(신라)

옛 사람들의 이름 적기[1]

‘이차돈’은 ‘이(李/異)’ 씨인가?



옛 사람들의 이름 적기[2]

‘이차돈’의 실제 표기

- 異次/伊處頓 (이차/이처돈)
- 馱髑 (염축), 馱覩 (염도)
- 馱髑 或作異次 或云伊處 方音之別也 譯云馱也 髑頓道覩獨等 皆隨書者之便 乃助辭也 今譯上不譯下 故云馱髑 又馱覩等也

- 『삼국유사』 권3 ‘馱髑滅身’ -

옛 사람들의 이름 적기[3]

	音	→	音讀字(음독자)	천
漢字 <				
天	訓	→	訓讀字(훈독자)	하늘

- 異次/伊處 (이차/이처) → 音讀字(음독자)
- 馱 (염) → 訓讀字(훈독자)
- 髑/頓/道/覩/獨 → 조사(도와주는 말)

옛 사람들의 이름 적기[4]

- 음독자 ‘異次/伊處’ (이차/이처)

☞ *잇 ← 이(異/伊) + 次(次/處)

- 훈독자 ‘猷’ (엄)

☞ *잇

※ 불인 고지 이츠며 게을어 비를 바느니(吹花困懶旁舟楫)

〈두시언해_초간 18:3〉

∴ ‘이차돈’ 이라는 이름은 ‘번뇌에 찬 세상을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불교를 통해 해탈을 꿈꾸는 사람 정도의 뜻을 지녔다고 봄직하다.

옛 사람들의 이름 적기[5]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해 적은 옛 사람들의 이름

- 居柒夫(거칠부) = 荒宗(황종)
- 赫居世(혁거세) = 弗矩內(불구내)
- 조선 시대 노비 이름

金突
光自里
栗音金

구결(1)

- 한문 원문의 이해를 목적으로 주로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표기한 것으로 대개 한자의 약체를 사용.

- 구결의 유형

- (1) 인쇄 여부에 따른 분류: 기입구결, 인쇄구결

- (2) 기입에 사용된 기호에 따른 분류

- : 부호구결 (=점토구결), 차자구결, 한글구결

- (3) 기입에 사용된 도구에 따른 분류: 각필(角筆)구결, 묵서(墨書)구결

- (4) 읽는 방식에 따른 분류: 석독구결 (=역독구결), 음독구결 (=순독구결)

구결(2)

● 석독구결

佛[↑] 卽^り 知^{ニカ} 時^{リキリ↑} のし、 得^{ニッ↑} 衆生^ヲ 根^し、

<13세기 중엽 舊譯仁王經>

※위쪽 토(吐)는 본문의 오른쪽 토를, 아래쪽 토는 본문의 왼쪽 토를 표시함.

(佛은 바로 때인 것을 아시며 衆生の 根을 얻으시니)

구결(3)

- 음독구결

阿難、白佛言、世尊、當於結心、解即分散、

<조선 초기楞嚴經>
(阿難이 부처께 사뢰되 世尊이시여 반드시 맨 가운데에서 풀면 곧 풀릴 것입니다.)

이두(1)

- 넓은 의미: 차자 표기 전반

『大明律直解』 _ 薛聰이 지은 方言文字를 吏道라고 한다

『帝王韻紀』 _ 薛聰이 吏書を 지었다

『訓民正音』 鄭麟趾 後序 _ 薛聰이 吏讀를 처음 만들었다

- 좁은 의미: 행정문서에 주로 쓰이는 실용적인 산문으로 한문이 극도로 우리 식으로 고쳐진 것. 고유 명사 표기, 향찰, 구결 등을 제외한 차자 표기

- 초기의 이두는 한문의 어순을 국어의 어순으로 바꾸어 표기하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국어의 조사와 어미까지도 한자를 이용해 표기하는 양식으로 발전.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오랜 동안 사용된 문자체계

이두(2)

● 초기의 이두

壬申誓記石 (552년 또는 612년)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 今自

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誓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若國不安大亂世 可容

行誓之 又別先辛未年七月廿二日大誓

詩尙書禮傳倫得誓三年

임신년 6월 16일에 두 사람이 함께 맹서하여 기록한다. 하느님 앞에 맹서한다.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에 충도(忠道)를 집지(執持)하고 과실(過失)이 없기를 맹서한다. 만일 이 일을 잃으면 하느님에게 큰 죄를 얻을 것이라고 맹서한다. 만일 나라가 편안치 않고 크게 세상이 어지러우면 可히 모름지기 (忠道를) 행할 것을 맹서한다. 또 따로 앞서 신미년 7월 22일에 크게 맹서하였다. 시(詩), 상서(尙書), 예기(禮記), 좌전(左傳)을 차례로 습득(習得)하기를 맹서하되 3년으로 써 하였다.



이두(3)

- 완성된 이두

『大明律直解』

중국 명나라의 형률서인 《대명률》을 이두로 번역한 책. 30권 4책. 목판본. 원간 연대는 발문의 연대인 1395년(태조 4)으로 추정되나 원간본은 전하지 않는다. 《대명률직해》는 《대명률》을 원문 그대로 직해한 것이 아니고 조선의 실정에 맞도록 하였다. 때문에 우리 고유의 용어와 표현이 적지 않다. 예컨대, 관제·관서명·직명·친족 호칭을 조선의 명칭과 호칭으로 바꾸었다.

他人矣 四支乙 截割爲旆

(타인의 四肢를 截割하며)

향찰(1)

- 고유명사 표기 방법에 이두 표기 방법을 결합시켜 국어의 의미부와 형태부 모두를 전면적으로 표기한 차자표기의 완성 단계
- 향가 25수의 표기에 사용. 대개 명사나 동사의 어간과 같은 실사(實辭)는 한자의 훈을 이용하고, 조사나 어미와 같은 허사(虛辭)는 한자의 음을 이용하는 방식
- 이른바 말음첨기(末音添記)라 하여 훈독되는 글자 뒤에 음독자를 덧붙여 줌으로써 그것이 나타내는 단어에 대한 어형적인 정보를 제공

cf. 道尸, 心音, 夜音, 憂音, 雲音, 川里, 城叱, 折叱可, 逐于, 見昆, 置古

향찰(2)

● 祭亡妹歌

生死路隱

此矣有阿米次盼伊遣

吾隱去內如辭叱都

毛如云遣去內尼叱古

於內秋察早隱風未

此矣彼矣浮良落尸葉如

一等隱枝良出古

去奴隱處毛冬乎丁

阿也 彌陀刹良逢乎吾

道修良待是古如

生死 길은

에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彌陀刹에서 만날 나

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김완진(1980) 해독 -